



해경스님의

### 경전읽기

법화경 ㉔ 중지용출품 제15

#### 아버짐과 아들 늙은 비유

금빛으로 빛나는 부처님만이 갖춘 서른 두 가지의 특별한 모습(三十二相)을 가진 위덕있는 구도자(修持者)들이 땅 속에서 솟아 나왔다. 이 구도자들은 아득한 옛날부터 사바세계 아래의 허공 가운데 머물러 있었으나, 석가모니불께서 자기들에게 중생 교화를 맡긴다는 음성을 듣고 아래로부터 솟아오른 것이다. 이 구도자들 가운데 네 사람의 도사(導師)가 있었다. 첫째의 이름은 뛰어난 행을 하는 상행(上行)이요, 둘째의 이름은 끝없는 행을 하는 무변행(無邊行)이요, 셋째의 이름은 깨끗하고 맑은 행을 하는 정행(淨行)이요, 넷째의 이름은 확고한 행을 하는 안립행(安立行)이다. 이 네 분의 구도자는 대중의 우두머리로서, 앞에서 그들을 인도해 가는 지도자였다. 자리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그 구도자들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자리에 모인 대중들은 이 땅 속에서 솟아난 지용(地涌 보살(菩薩)의 출현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실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동시에 한결 같이 의문을 품었다. 도대체 이 구도자들은 어디에서 왔으며 또 그들이 오게 된 연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들은 누구에 의해서 교화되었으

“머리털은 검고 얼굴과 살결이 고운 25세의 젊은이가 백발에 주름투성이인 100세의 노인을 가리키며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 하고, 그 노인도 ‘이 분은 내 아버지입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일을 세상 사람들이 모두 믿지 않는 것처럼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믿기 어렵습니다’고 여쭙는다. 이것이 ‘아버짐과 아들 늙은 비유’이다.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석가모니불께서 이렇게 많은 지용의 보살들을 교화해 왔다는 사실이 커다란 놀라움이며 의문이었다. 부처님은 진실한 말씀만을 하신다고 믿으면서도 마이트레야는 후세의 보살들이 이 <법화경>을 의심하고 법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 부처님께 “그 까닭을 말씀하십시오” 하고 간청한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마이트레야의 최초의 질문은 대해 부처님께서 지용보살들이 머문 곳과 교화의 스승, 그리고 그들이 간직하고 있는 가르침에 대해 대답하셨다. 그 대답 가운데의 계승 맨 끝에 ‘내 아득한 옛날부터 이 대중들을 교화해 왔다’고 하는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한 이래 40여 년, 현재 이렇

## 구도자들 지용보살 존재 의심 부처님 “먼 옛날부터 대중교화”

며 또 어떤 법을 간직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일종의 의문을 구도자 마이트레야(彌勒)가 대중을 대표하여 부처님께 질문한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이 지용 보살들은 부처님인 내가 이 사바세계에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은 후에 교화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나의 법, 즉 <법화경>을 배워 익히기를 바탕으로 정진하며 사바세계의 아래쪽 허공 가운데 머물고 있던, 오랜 옛날부터 내가 교화해 온 구도자들이다. 이 사실을 일심으로 믿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들은 구도자 마이트레야를 비롯한 대중들은 한층 더 의혹을 품게 되었다. 왜냐하면 먼 눈앞에 계시는 석가모니불께서는 출가하여 가야성 근처의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고 붓다(佛)가 되신 지 불과 40여 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천만여 겁이라는 세월을 걸쳐 가르쳐도 가르칠 수 없을 만큼의 구도자들을 교화해 왔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듭 구도자 마이트레야는 이 의문을 비유를 들어 부처님께 질문한다.

계 대중 앞에서 <법화경>을 설하며 나이 80에 입멸하시는 석존이 실제로는 우주 시작된 아득한 옛날부터 수명을 계속 유지하며 교화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이트레야는 물론 현재의 우리들도 이 점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한편 이 눈앞의, 나이 80에 입멸하는 우리와 가까운 석존이 실제로는 아득한 옛날부터 수명을 유지하며 지금에 이르렀음을 밝히는 것을 ‘개근 현원(開近顯遠)’, 즉 가까운 것을 열어서 먼 것을 나타낸다고 한다. 또 이러한 사실은 35세 성도(成道) 80세에 입멸(入滅)이라는 현실의 석존에 대한 종래 사람들의 부처님에 대한 생각을 뿌리에서부터 변형시키는 것이 된다. 한량없는 수명의 부처님이란 어떠한 존재이며 80세에 입멸하시는 현실의 부처님과과는 과연 어떤 관계일까. 부처님의 신체에 관한 문제가 여기서부터 비롯된다. 이에 대한 해설이 다음의 ‘여래수량품’이다. 즉 수량(壽量)이라는 말을 바꾸어 말하면 ‘무량수품(無量壽品)’이 되므로 지난날의 범화천태종에서는 <나무묘법연화경>이 아닌 <아미타불>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음을 알아야 한다. ■무수정사 조실

오직 부처님의 법과 자신만을 스승으로 삼아 목숨을 건 옹양정진으로 깨달음을 성취한 아잔문. 철저한 무소유와 엄격한 자기 통제로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두타행을 지켜나갔던 그의 삶은, 그 자체가 하나의 위대한 설법이였다. 아잔 문의 엄격한 수행 가풍을 그대로 이은 마하 부와 스님의 숭수의 사원 왓바반달(Wat Pa Bahn Tahd)은 태국 북부의 우도론(Udon) 지방에 있는 약 100에이커 되는 땅에 자리잡고 있다. 스님들의 거처는 20개 이하로 많지 않으며, 수련은 매우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마하 부와 스님은 자신에게 엄격했던 스승의 방법대로 두타행에 가까운 행법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있다.

스승인 아잔 문이 설한 두타행 계율은 크게 아홉 가지이다. 집집마다 차례로 결식하기, 식사 후에 음식 안 받기, 하루에 한 끼 식사하기, 한 바투의 음식만 받기, 누더기 가사 걸치기, 숲속에서 지내기, 나무 밑에서 지내기, (내부 또는 외부의) 공동묘지에서 지내기, 세 번의 가사만 입기 등 부처님 당시의 계율을 거의 그대로 따른다.

태국과 라오스의 다른 숲속 사원과 마찬가지로 왓바반달에서 가르치는 수련은 매우 단순한 생활을 기초로 한다. 숲속에서의 수행은 고립과 한적함 속에서 마음집중과 관참이 이어지고, 자기 만족이나 과시의 방일(放逸)이 끼여들 틈이 없다. 숲속 승가에서는 “고(苦)의 소멸을 열망하는 자에게, 숲속의 직막한 수행은 모든 덕의 원천이 된다”고 한다.

이른 아침에 나서는 탁발, 하루 한번의 간단한 식사, 작은 집, 목욕을 위한 우물, 오랜 기간의 묵언 정진, 외딴 숲속, 이와 같은 환경이 세속과는 전혀 다른 숲속 승가의 전통을 이어가도록 한다. 단순한 수행환경은 수행자들을 더욱 침착하고 소박하게 만들어, 마음과 생활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관찰하도록 해 지혜를 개발하게 한다.

제자들은 초라한 거처에 있을 때나 경행 길에 나갈 때도 한눈 팔지 않고 수행에 전념한다. 그들은 무슨 일을 하든 온종일 마음챙김과 지혜로 자신들의 마음을 닦는다. 탁발을 하러 갈 때나, 함께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완전한 마음챙김(mahasati)에서 완전한 지혜(mahapanna)를 얻을 때까지 모든 순간과 동작을 제어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8정도의 수행을 위해 마음챙김은 필수적인 요소다.

마하 부와 스님의 수행 방식은 그의 스승과 마찬가지로 매우 엄격하다. 발심이 부족하거나 의지가 약한 제자들은 견내지 못한다. 7일에 한번 꼴로 정기적인 법회가 있으며, 제자들은 나머지 시간에 자신들의 거처에서 전심전력을 하다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면 언제라도 가르침을 청한다.

수행을 할 때는 아침이든, 낮이든, 밤이든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제자들은 엄송하기 위해 발채한 경구와 지혜의 법문으로 얻은 위빠사나 주제나 수행에 마음을 집중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자들은 특정한 경지에 이를 수 있고, 꾸준한 노력으로 점진적인 성취를 이루고 있다.

이런 적극적인 숲속 승가지만 구도의 길에 나선 수행자들에게는 언제나 문을 개방하고 있다. 다수의 서구인들이 마하 부와 스님이 지도하는 몇 달 간의 위빠사나 수련회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아잔 문이 항상 새로운 제자들에게 바라는 대로 몇 년 간 함께 수행하고 있다. 가끔씩 마하 부와 스님은 재가 불자들에게도 가르침을 직접 전하기 위해 방콕과 영국 런던에 간다. 영어로 발행된 그의 법문은 방콕의 왓 바보르니오스 사원을 통해 전세계의 불자들에게 퍼져나가고 있다. 마하 부와 스님은 치열한 정진과 함께, 수행자들

## 지혜 선정 깨달음으로

이 따뜻한 자비심을 갖도록 지도한다. 자비심은 수행의 진보를 가져오기 위한 필요 조건이기 때문이다. 스님이 ‘태국 국민 돕기 운동’을 벌이며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행복’이라는 동체대비심에서 우러난 것이다. 이 운동에는 푸미볼(Phimibol Adulyadej) 태국 국왕 등 전 국민이 동참하고 있다.



89세의 고령에도 두타행을 쉬지않는 마하부와 스님에게 하루 한끼 공양을 위한 결식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마하 부와 스님은 지혜의 개발을 중요시하는 위빠사나 선사이지만, 강하고 지속적인 선정 개발을 강조한다. 선정과 평정심을 개발하기 위해 몸과 마음의 관찰을 통한 지혜 수행을 병행하는 것이다.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를 함께 닦는 지관겸수(止觀兼修)의 강조는 대소승의 전통이 섞여 있는 태국 승가의 특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마하 부와 스님에 따르면, 선정은 훨씬 더 깊은 지혜를 이끌어 낸다. 마하 부와 스님은 계(戒) 정(定) 혜(慧), 삼학(三學)을 말했지만,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어떤 특별한 순서에 입각해서 닦아야 할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 대신 마음 속에 번뇌가 일어나는 대로 번뇌를 제거하기 위해 계, 정, 혜가 동시에 작용하는 수행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계정혜를 어떤 순서에 입각해서 닦아도 안되고, 동시에 계정혜를 따서 수련해서도 안됩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과 그 외의 모든 번뇌가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고, 누구도 그런 것들을 질서정연하



## 마하부와 스님

1980년대부터 한국에서는, 부처님 재세시에 행한 수행자들이 미얀마나 태국 등 남방불교 국가로 건너가서 위빠사나를 하여 하나의 수행법만 있는 것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한국에 소개된 위빠사나(1904-1982)가 체계화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때 전통을 회통한 아잔 문(Ajahn Mun, 1870-1960) ‘아짠(Ajahn, 禪師) 문’은 위빠사나를 수행방편으로 최고의 선지식으로 추앙받고 있다. 태국 불교를 창시한 그의 제자인 마하 부와(Maha Burua) 스님이



마하부와 스님은 태국 국민들의 정신적 지주나 다름없다.

## 선정·위빠사나 번뇌 이는대로

게 다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행자가 사색 생각을 할 때, 마음에 번뇌를 일으키는데, 어떤 번뇌가 먼저 오고 나중에 올지는 알지 못합니다.” 마하 부와 스님은 마음을 가라앉히기 힘든 입문자들이 기본적인 선정을 개발하도록 만트라(mantra, 진언)를 염(念)하거나 송(誦)하기를 권한다. 초보자들은 생활환경에서 오는 압박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붓다’, ‘달마’, 혹은 ‘승가’ 등과 만트라를 예비적인 수행 단계에서 염송할 때, 마음을 가라앉히고 선정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지혜 개발의 토대가 되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말하자면, 선정이

##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불교전문대학원인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9월 1일 개교합니다. 동시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한 마음공부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원도 개원합니다.

- I. 자 격 1) 일반성인 남·여 2) 학력·연령 제한 없음
- II. 모집기간 2002. 8. 1(목) ~ 8. 31(토)
- III. 제출서류 1)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2) 사진 2매(3cm x 4cm)
- IV. 접수방법 1) 방문 접수 : 본 대학 행정실을 방문하여 원서작성 후 학습비와 함께 접수 2) 인터넷접수 : 학습비를 아래 계좌로 입금한 후 www.sgsb.ac.kr로 접수 3) 우편 접수 : 아래 계좌로 학습비를 입금한 후 우편으로 송부 ※ 계좌번호 : 국민은행 843-25-0012-635(예금주 :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 V. 특기사항 1) 소정의 과정수료자에게는 평생교육원장 및 총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2) 불교상담전문과정은 4학기제로 운영되며, 4학기를 수료하고 소정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분에게는 불교심리상담사 자격증 수여 3) 학점은행제 인가시 수료학점 인정
- VI. 유의사항 1) 가을학기 수업은 2002년 9월 첫주부터 12월 둘째주까지 강의할 예정이다. 2) 납입한 학습비는 환불이나 연기되지 않음. (단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강 후 1주일 이내에 신청하여 환불받을 수 있음) 3) 토·일·국경일 및 개교기념일은 휴강함. 4) 수강신청자가 적을 경우 폐강될 수 있음. (폐강시 납부한 학습비 환불) 5) 총 수업일수의 1/3 이상 결석자는 수료대상에서 제외함.

VII. 문의처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행정실 전화 02-808-3321, 6582 팩스 02-808-6581 / 홈페이지 www.sgsb.ac.kr

### 설치 교육과정

설치과명	교과목	학점(이수시간)	학습기간(주)	학습비	담당교수
불교교양과정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기초교리)	2(30)	15	150,000원	목정배박사/본교 총장
불교수행과정	행복한 삶을 위한 마음 수련 (참선, 위빠사나)	2(30)	15	150,000원	인경스님(철학박사)/본교초빙교수
상담심리일반과정	건강한 삶의 비결-요가 (요가심리학의 이론과 실습)	2(30)	15	150,000원	조옥경박사/본교초빙교수
	아동·청소년 심리와 올바른 부모역할	2(30)	15	150,000원	김은경박사/본교초빙교수
불교상담전문과정(1학기)	심리학개론	2(30)	15	150,000원	이현수박사/고대구로병원
	성격심리학	2(30)	15	150,000원	박애선박사/본교전임교수
	상담 및 심리치료	2(30)	15	150,000원	김영권박사/본교전임교수

▶ 불교상담 전문과정은 학기당 3과목 4학기제로 운영되며, 4학기를 수료하고 소정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분에게는 불교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드립니다.  
▶ 학점은행제 인가시 이수한 학점 인정, 고졸자로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분은 학사학위 취득가능

## 2002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불교전문대학원인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2002년 9월 1일 개교합니다.

- I. 모집학과 및 인원 1) 모집학과 : 불교(명상)학과 · 상담심리학과 2) 모집인원 : 석사과정 - 0명, 연구과정 - 약간명
  - II. 지원자격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학부전공과 상관없음)
  - III. 전입일정 1) 원서교부 및 접수 기간 : 8. 1(목) ~ 8. 17(토) 장소 : 본교 행정실 또는 홈페이지(www.sgsb.ac.kr) 2) 전형일시 : 8. 21(수) 10:00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IV. 제출서류 1) 입학원서 1부(사진 2매 3cm x 4cm) 포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2) 대학 전학전 성적증명서 1부 3) 대학졸업(예정) 증명서 1부 4)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 (해당자) 1부
  - V. 전 명 료 : 50,000원
  - VI. 합격자 발표 1) 일시 : 2002. 8. 24(토) 10:00 2) 장소 : 본 대학원대학교 행정실 ☎ (02) 808 - 3321
  - VII. 특 전 1) 성적우수자 및 모범학생 장학금 지급 2) 자격증취득가능 불교(명상)학과 - 포교사, 불교명상치료사/상담심리학과 - 상담심리사, 상담전문가 ※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대학교 행정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 808-3321, 6582 / 팩스 (02) 808-6581  
주소 : 153-0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38-2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